해양수산부	동정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7.(토)

남재헌 해수부 차관, 김포시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개장식 참석

- 수도권 대표 복합형 관광어항으로 새단장한 대명항 개장 축하 및 관계자 격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7일(토) 경기도 김포시 대명항 일원에서 해병대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개최된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271억 원(국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직판장을 신축하고, 문화광장 조성과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명항을 수산물 판매 기능에 문화·관광 기능이 더해진 복합형 관광어항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날 남 차관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힘써 온 김포시와 어촌계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조성된 수산물 직판장을 시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남 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대명항이 수산물 유통과 문화·관광 기능이 어우러진 수도권 서부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대명항을 국가 어항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민 모두가 찾고 싶은 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 장	홍근형 (051-773-6170)
		담당자	사무관	김우진 (051-773-604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